

# '조성 7년' 나주혁신도시 전입률 전국 꼴찌

### 6월 기준 계획 인구 4만9499명에 1만6000명 부족 부산 107%...울산·강원 등 전입률 90% 이상 대조 조오섭 의원 "교육·의료시설 등 인프라 조성 시급"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조성 7년차를 맞았지만 계획인구를 1만6000명 못 채웠으며, 전입률도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나주 혁신도시 전입률은 67.7%로, 경남(67.6%)·충북(67.7%)와 함께 최하위를 기록했다.

나주 혁신도시에 주민등록을 마친 인구는 3만3525명으로, 계획인구 4만9499명 대비 미충원율은 32.3%이다.

국내 최대 공기업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지난 2014년부터 혁신도시에 동지를 댔지만 계획했던 인구를 아직도 1만6000명 채우지 못한 셈이다.

반면 부산 혁신도시의 경우 계획인구를 498명 넘긴 7498명이 주민등록을 하며 전입률은 107.1%를 기록했다.

부산에 이어 울산(95.5%), 강원

(94.3%), 전북(92.9%), 제주(91.9%) 등은 90% 넘는 전입률을 나타냈다. 10개 도시 평균 전입률(79.8%)을 밑돈 도시는 광주·전남을 포함해 경남, 충북 등 3곳 뿐이었다.

나주 혁신도시 16개 공공기관·공기업이 이전하면서 총 이전인원은 7714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혁신도시에 거주하는 인원 비중은 68.8%(5310명)로, 전국 평균 65.3%를 소폭 웃돌았다. 하지만 5명 중 2명 꼴(40.3%)은 독신·미혼자 등 1인 가구였다.

이처럼 혁신도시 인구가 목표에 크게 못 미친 것은 열악한 주거여건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주 인프라 가운데 특히 교육·의료시설은 전국에서 하위권을 전전했다.

나주 혁신도시의 학교 구축비율은 목표의 70%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이는 전국 평균(79.6%)에 크게 못 미쳤으며, 부

### ■ 10개 혁신도시 조성 현황 비교

도시	전입률	지역채용 비율	종합병원까지 거리
부산	107.1	35.7	1.7
울산	95.5	27.2	2.4
강원	94.3	25.5	4.8
전북	92.9	25.5	8.4
제주	91.9	21.7	5.3
경북	83.2	25.8	6.8
대구	82.3	28.7	8.3
충북	67.7	27.4	12.1
광주·전남	67.7	24.6	8.8
경남	67.6	22.5	5.2

※올 6월 말 기준(채용비율은 2019년 12월) (자료: 조오섭 의원실)

산·울산·강원은 이미 조성률 100%를 달성했다.

유치원 조성률도 전국 평균(85.1%)을 밑도는 63.6%로 나타났다.

주요 편의시설 접근성도 낮았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종합병원까지 거리는 평균 8.8km(37분)으로, 충북(12.1%)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멀었다. 응급의료시설 접근성도 전국 평균(6.1km) 보다 2.7km나 먼 8.8km로 조사됐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접근성은 8.9km(22분)으로, 전국 평균(5.1km)과 큰 격차를 보였다.

6월 말 현재 공동주택 보급률은 79%로, 혁신도시 평균(87.1%)보다 뒤지고 충북(77.5%)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광주·전남지역 한 해 평균 대학 졸업생은 3만6000명이 넘었지만 지난해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은 평균을 밑돌았다.

지난해 나주 혁신도시 13개 기관의 총 채용인원(3166명) 가운데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은 절반 가량(50.9%)인 1611명이었다.

의무채용 대상 중 실제 지역인재를 뽑은 비율은 24.6%(396명)으로, 10개 도시 가운데 제주(21.7%), 경남(22.5%)에 이어 세 번째로 낮았다.

조오섭 의원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확대와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의료복지 인프라 접근성 확보 등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며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대비해 공동혁신도시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통해 상생형 공동 공공기관 유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한전공대 설립추진위 다음 주 출범

### 위원장에 윤의준 총장 후보



이들 위원들은 공식 발족 전 자문 회의를 열어 교육 연구부총장과 행정 부총장 도입 등 직제와 교과과정 골자를 논의했다.

한전공대(가칭) 설립을 이끌 한전공대 설립추진위원회가 추석 이후 공식 발족하고 활동에 들어간다.

27일 한전공대 설립단에 따르면 윤의준(사진) 한전공대 초대총장 후보를 위원장으로 한 설립추진위원회가 다음 달 둘째 주 공식 발족한다.

추진위는 11명의 자문위원과 정재천 한전공대 설립단장 등 내부 인력 등 총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자문위원에는 서울대, 카이스트, 성균관대 등 주요 대학의 교육학, 전기에너지공학, 건축학 전공 교수와 대학설립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직직 교육계 인사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교과·건축위원회 등 4개 위원회로 나뉘어 대학 캠퍼스 상세설계, 건축일정 등 각 분야별 현안을 추진한다. 활동기간은 교육부 대학설립 인가를 마치는 내년 3월까지로 예정됐다. 지난 6월 학교법인 이사회를 통해 선임된 윤의준 총장후보자는 내년 대학설립 인가를 받으면 정식 총장으로 임명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한전 '디지털 경영혁신대상' 대통령상 수상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회 대한민국 디지털 경영혁신대상'에서 종합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한전은 지난 24일 서울 세종호텔에서 개최한 '경영혁신대상' 시상식에서 이같은 수상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대한민국 디지털 경영혁신대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빅데이터학회가 주관한다.

디지털 전환을 통한 혁신성과 창출이 탁월한 기업과 기관을 선정해 시상하며, 전문가 및 교수 심사위원회의 1차 서류심사 및 2차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한전은 디지털변환 추진전략 수립,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전력인공지능·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허브-팝) 개발,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개소, 에너지마켓플



김숙철(오른쪽) 한전 기술혁신본부장이 '대한민국 디지털 경영혁신대상' 대통령상을 받고 있다. (한전 제공)

레이스(엔터) 구축, 전력계량 분석 '파워체크 모바일 서비스' 등의 디지털변환 추진성과를 인정받았다.

한전은 에너지플랫폼 및 디지털 솔루션 사업추진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은행, 제1전투비행단에 위문금 1000만원 전달했다. (단장 권오석)을 방문해 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광주은행 제공)

## 중·장년층 新 재테크 수단 '각광' 국민연금 추후납부제 신청 는다

### 광주·전남 올 상반기 4572건... 지난해의 59% 수준

중장년층의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른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제도' 광주·전남 신청건수가 올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말 기준 국민연금 추납 신청건수는 광주 2260건·전남 2312건 등 4572건으로 집계됐다.

올 상반기 신청건수는 지난 한 해 신청(광주 3811건·전남 3933건)의 59%에 달한다. 추납 신청금액은 광주 136억5000만원·전남 123억2000만원 등 262억7000만원으로, 전국 신청금액(6149억원)의 4.3%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민연금 추납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실직, 폐업 등으로 인해 내지 못한 보험료를 추후에 일시 납부하는 제도다.

추납 제도는 애초 취약계층의 노후 보장을 위해 도입됐지만, 국민연금 보험료의 수익률이 민간보험보다 높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소득층이 추납을 재테크 수단으로 보고 대거 신청하는 현상이 생겼다.

광주·전남 추납 신청은 올해 4월 630건, 5월 810건, 6월 817건 등 최근 3개월 동안 증가하는 추세다.

이용호 의원은 "국민연금 추납은 부유한 장년층이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자칫 세대 간 갈등으로 변질 수 있다"며 "최근 정부가 국회를 중심으로 추납 기한을 10년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개선 의지를 밝힌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광주·전남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1% 못미쳐

광주·전남 10만 소상공인 가운데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곳은 1%에도 못 미치는 800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황은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광주·전남지역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9만9059개소 가운데 보험 가입사수는 0.81% 수준인 805건으로 집계됐다.

광주는 4만4777개소 중 전국 평균(0.47%)에 못 미치는 0.22%(99곳)만 가입했고 전남은 5만4282개소 가운데 1.3%인 706개소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 로또복권 (제930회)

등위	당첨번호	당첨금(원)	당첨자수
1등	8 21 25 38 39 44	2,832,418,829	8
2등	5개소자 + 보너스소자	68,664,699	55
3등	5개소자	1,360,432	2,776
4등	4개소자	50,000	128,480
5등	3개소자	5,000	2,124,548

# 코로나19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정성과 따뜻한 마음으로 진료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ww.dsuh.co.kr

## 통증·재활 교통사고

동신대학교한방병원

진료네트워크 : 광주 · 목포 · 나주 · 서울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평가」

## 최우수1등급 획득 동이병원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238 ☎ 062\_650\_2500

문영래 정형외과 병원 YM Orthopaedic Hospital

어깨, 팔꿈치, 무릎, 통증치료

☎ 대표전화 062)606-8275

서구 운천로148 2, 3, 5층 (상무중학교 옆)

보건복지부 지정 안과전문병원

## 밝은안과21병원

노안 백내장 스마일 라식

광주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현병방향 062)354-9000

http://www.smstardental.com

광주전남 대표 치과병원·기아타이거즈 공식치과

## 상무스타치과병원

대표원장 김은규 외 원장 일동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58 (치평동 1236-3)타임스퀘어빌딩 7층 T. 062-367-8889 F. 062-367-8822

www.saewoori.com since 2002

## 광주 새우리병원

2018년 1월 현재 2011, 2015, 2019년 3회 연속 지정!

보건복지부 지정 광추 유일 척추전문 병원

지정기간 : 2018.01.01 ~ 2020.12.31

광주 화정동 농성로 4번출구 대표전화 062)603-8000